



“노조법 개정 투쟁 원청 대규모 사업장 나설 때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국회 앞 결의대회 ... 금속, 외투법 개정·구조조정 중단 결의대회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약속을 지켜라. 국민의 힘은 철저하게 노동자를 외면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소위원회를 여는 첫날인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조합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 진짜 사장 교섭법, 손배폭탄 금지법, 노조법 2조·3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외투법 개정, 구조조정 중단,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규선 노조 경기 지부장과 최윤미 한국화이퍼분회장은 국회 앞에서 일본 텐소와 텐스코리아의 위장청산 철회, 불법 대체생산 중단, 텐스코리아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6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운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국회를 이제 노동자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면서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가 노조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명령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시하면 노동자는 노동자 방식으로 가겠



다” 라고 경고했다.

김형수 지회장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이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라면서 “이제 열린 활로를 향해 함께 뛰어가자.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위해 함께 가자” 라고 호소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현재 노조법 개정 투쟁 동력 2%가 부족하다” 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손배폭탄법의 집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국민 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이동해 노조법 개정 투쟁을 방해하지 말고, 국민동의 청원 발의안대로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말과 달리 법 개

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민주노총 대회에 앞서 연 ‘외투법 개정, 구조조정 중단,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국회에 외국자본의 대량 해고와 먹튀를 막는 법안이 올

라가 있지만, 어느 당도 다루지 않고 있다.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더는 한국산연과 다이셀처럼 외국자본이 먹고 튀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국외이퍼 투쟁을 금속노조가 책임지고 반드시 고용안정을 쟁취할 것이다” 라며 “결연한 12월 끝장 투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한국외이퍼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윤미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화이퍼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단식 농성 16일째지만 괜찮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면서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외투 자본의 기획 먹튀 방식의 청산, 폐업에 분노하고 있다” 라며 “한국외이퍼 사태를 계기로 공감대를 모아 외국투자자본 먹튀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